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Music Biz Weekly Brief

# 음악산업 주간브리프

제12호  
2009.2.27~2009.3.5

## I. Analysis Overview ..... 1

---

## II. 국내 동향 ..... 4

---

1. 산업정책 및 제도 ..... 4
2. 음악업계 동향 ..... 7
3. 소비자동향 ..... 10
4. 언론동향 ..... 15
5. 행사 및 협회 소식 외 ..... 17

## III. 해외 동향 ..... 20

---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 20
2. 한류관련 음악사업 동향 ..... 22

# I. Analysis Overview

**I. Analysis Overview** ..... 1

## II. 국 내 동 향

**1. 산업정책 및 제도 [김평수 연구원]** ..... 4

**1-1. 문화부, '2009년도 불법저작물 단속 계획' 발표** ..... 4  
 문화부는 지난 3월5일 해비업로더 수사·집중단속 및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에 대한 24시간 감시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불법저작물 단속 계획'을 발표.

**1-2. 저작권법 개정안 문방위 통과** ..... 5  
 지난 3월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안-2008년 8월 24일 제안법안)을 통과

**1-3. 문화부, 융합형 콘텐츠 등 신성장동력 산업 본격 지원착수** ..... 6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콘텐츠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2. 음악업계 동향 [김훈 연구원]** ..... 7

**2-1. 유엔젤, '아이드러머' 앱스토어 카테고리 1위 차지** ..... 7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전세계에 유료로 공개한 모바일 뮤직 어플리케이션 '아이드러머'가 공개 1주일 만에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료형 뮤직 카테고리 1위와 유료형 전체 순위(TOP PAID)에서 2위를 차지

**2-2. KTF뮤직, 올해 전체 매출 400억 전망** ..... 8  
 지난 해 매출 338억원을 기록한 KTF뮤직이 27일 실적 전망 공시를 통해 올해 매출을 400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2-3. 엠넷미디어, 지난해 영업손 31억 적자축소** ..... 8  
 엠넷미디어는 5일 지난해 영업손실이 31억900만원을 기록해 적자 폭이 축소됐다고 공시

**2-4. 서태지 팬들, 저작권 관련 2차 국회토론회 개최** ..... 9  
 서태지 팬들이 지난해에 이어 음악저작권 개선을 위해 2차 국회토론회를 열 예정

**2-5. 기타 단신 등** ..... 9  
 ○ 디바 이은미, 음악활동 20년만에 가수음반 제작  
 ○ 환율 '高·高'...한류 "Go-Go" 톱가수들, 공연·음반 해외 발길 활발  
 ○ '에덴', '꽃남' 日서 인기 재대결

**3. 소비자 동향 [서상아 연구원]..... 10**

**장기하와 얼굴들, 음반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 10**  
 10대 위주의 소비를 보였던 음반들보다는 가창력과 음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가수들의 신보가 고른 판매고를 올렸고 그 중에서도 <싸구려 커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장기하와 얼굴들의 정규 1집 앨범의 선전이 이목을 끌었다.

**상위권 차트의 빠른 성장과 중위권 차트의 정체 현상 ..... 13**  
 소녀시대의 굳건한 자리매김 속에서 카라, 휘성의 전 차트 상위권 안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상위권 곡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곡들이 별다른 변화 없이 차트에 체류하고 있어 당분간 차트 내 정체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언론 동향 [박진석 연구원]..... 15**

**4-1. 올 상반기, 계속되는 아이돌 여성그룹의 강세 ..... 15**  
 연초부터 계속되던 소녀시대의 열풍은 아직도 뜨겁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소녀시대의 'gee'는 뮤직포털 엠넷의 3월 첫째 주 엠넷차트에서 다시 한 번 1위를 차지하며 8주 연속 1위의 기록을 세웠다.

**4-2. 네이버·다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 받는다 ..... 15**  
 언론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되어있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 3일 법원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4-3. 드라마 속 '막장'논란 가요계까지 ..... 16**  
 드라마 속의 '막장'논란이 가요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언론은 최근 발표된 신인가수 '이불'의 신곡 '사고치고 싶어'가 MBC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사실을 보도하며 논란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4-4. 주요 단신 ..... 17**  
 -'대중문화의 전당' 유치경쟁 치열  
 -불황 공연계, 줄이고 또 줄인다  
 -'인디' 장기하와 얼굴들, 음반 판매 1위 기염

**5. 행사 및 협회 소식 [장정희 연구원] ..... 17**

**5-1. 메이다니의 '세븐틴' 우수신인음반 선정 ..... 17**  
 메이다니의 싱글앨범 '세븐틴(7teen)'이 3월의 우수 신인음반에 선정됐다. 세븐틴은 윤일상이 직접 작사와 작곡 그리고 프로듀싱까지 맡은 음반이다.

**5-2. 2009년도 제1차 저작권 전문가 포럼 개최 ..... 18**  
 저작권위원회는『IPTV의 기술과 발전동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2009년도 제1차 저작권 전문가 포럼을 2009년 3월 5일(목) 개최했다.

**5-3. 실연자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 도입 ..... 18**  
 지난 3월 2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해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Ⅲ. 해 외 동 향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고민정, 장정희].....	20
<b>1-1. YouTube와 Universal Music, 라이선스 협상 진행</b> .....	20
YouTube와 Universal Music Group 사이에 언급된 계약 논의는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고 뮤직 비디오 뿐 만 아니라 뮤지션과 밴드들에 관련된 콘텐츠도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진행 중	
<b>1-2. Eminem 음악, 디지털 음원 구매 논란의 중심에 서다</b> .....	20
Eminem 음악과 관련된 2년여의 소송에 관한 판결이 LA에서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결과에 따라 저작권 수익 분배에 대한 판도변화가 예상	
<b>1-3. 오래 지속됐던 다운로드 관련 소송이 드디어 합의에 도달</b> .....	21
음반 업계는 법원이 다운로드로 인해 생긴 불분명한 손실에 대한 영역 및 규모를 산정해 줄 것으로 기대	
<b>1-4. 주요 단신</b> .....	22
○ 음원 구매 시 소비자들이 iTunes보다 Amazon을 선호	
○ mSpot이 자사의 첫 웹사이트 출시	
○ Nokia Music Store 싱가포르 출시, DRM-free 검토 중	
○ Virgin Megastores의 남은 점포 모두 폐쇄 예정	
○ Warner Music과 MTV Games 재계약 협상 미정	
2. 한류관련 음악산업현황 [고민정, 김평수].....	22
<b>2-1. 태국 유력 일간지 한류열풍 집중보도</b> .....	22
태국 언론들이 한류 열풍을 보도하며, 동방신기, 빅뱅, 슈주 등등의 스타들과 함께 패션에서부터 다양한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한국상품으로 그 인기를 넓혀가고 있다	
<b>2-2. 한류스타 이준기, 대규모 아시아 팬콘서트 연다</b> .....	23
이준기는 오는 4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이준기-에피소드 2'라는 타이틀로 1만여 팬들에게 춤과 노래를 선사	

## Ⅱ. 국내 동향

### 1. 산업정책 및 제도

#### 1-1. 문화부, '2009년도 불법저작물 단속 계획' 발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헤비업로더 수사·집중단속,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에 대한 24시간 감시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불법저작물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불법전송하는 헤비업로더에 대한 수사단속이 이루어지고, 현재 음악저작물에만 가동하고 있는 불법차단추적시스템을 영상물에 추가 구축하는 등을 한 해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도 불법저작물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저작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구축 등 24시간 감시체계 마련

이에 따라 문화부는 먼저 불법저작물 유통이 주로 이루어지는 포털, 웹하드, P2P 등 온라인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불법 저작물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업로드가 가장 많은 음악저작물의 경우 작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불법음원 자동추적시스템을 적극 가동하고, 영상물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자동추적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한편, 재택근무 인턴 40여 명을 채용해 주말 및 심야시간대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음원에 대해 가동 중인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은 P2P,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을 자동 검색해 업로더에게 실시간으로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시스템으로 연간 1억 개의 불법저작물 검색 및 삭제요청이 가능하다.

#### ◆ 온라인 저작권 상습범 '헤비업로더' 수사 단속

직업적·상습적으로 불법저작권을 전송하는 헤비업로더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부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은 주로 헤비업로더가 올린 저작물"이라며 "올해는 특히 단속 대상범위를 포털, UCC 등으로 더욱 확대하고 단속시기도 기획단속에서 수사단속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며 특히 "지능화·고도화된 주요 헤비업로더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유통정보 파악이 필수적"이라며 "관련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시단속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 보호, OSP도 나서라'...업체 이행의무 강화

온라인상에서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웹하드, P2P 등 특수유형 OSP와 포털 등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의지가 중요한 만큼 이들에 대한 이행의무 등도 강화한다.

문화부는 웹하드, P2P 등 특수유형 OSP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시한 시장점유율 기준 40개 상위 업체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포털에 대해서도 수시로 주요 카페 전수 조사 등을 통해 불법저작물에 대한 삭제·중단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오프라인 불법저작물에 대한 지속 단속 실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감안해 오프라인 상의 단속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부는 3월, 9월 등 새 학기 기간 전후로 대학가 주변 복사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지난해 용산 등 수도권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 많은 성과를 거둔 '서울 클린프로젝트'를 올해에도 4월에서 7월에 걸쳐 시행한다.

특히 오프라인상의 불법저작물 유통도 기획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저작물 제작·유통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강화 등으로 상시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정품 소프트웨어(SW)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SW 불법복제 사용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되,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1800여개 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태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 공정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및 예방활동 강화

문화부는 또 사후적인 단속활동과 더불어 합법적인 저작물이 유통될 수 있는 저작권 유통 환경도 적극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상에서의 합법적인 유통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이트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우수 사이트는 클린사이트로 지정, 이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합법 저작물 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문화부 올림뉴스, 2009-03-5

**1-2. 저작권법 개정안 문방위 통과**

지난 3월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안-2008년 8월 24일 제안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올린 혐의로 3회 경고를 받은 누리꾼이 다시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자신의 ID로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된다. 누리꾼에 대한 제재는 신설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한다.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통시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삭제 또는 (다운로드를 할 수 없도록) 전송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을 경우에도 최대 6개월간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다. 문화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통합했으며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2월 국회 폐회 직전 본회의에도 상정됐으나 밤 12시를 넘김에 따라 처리되지 못했다.

#### [관련기사]

불법복제물 웹사이트 게재 3회 경고 후 또 적발 땀 로그인 불가, 동아일보, 2009-03-03

### 1-3. 문화부, 융합형 콘텐츠 등 신성장동력 산업 본격 지원착수

○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콘텐츠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말 2009년도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디지털콘텐츠 가치사슬 연계 강화' 사업 등 5개 분야별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절차를 마감한 결과, 396개 기업, 227개 프로젝트가 지원사업에 응모하였다고 밝혔다.

○ 총 1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콘텐츠 산업을 뛰어 넘어, 방통융합 등 디지털 컨버전스 산업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차세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근 IPTV 등 양방향 서비스의 시장초기 서비스에 대응하여 우수한 양방향 콘텐츠를 확충하고 신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방통융합 콘텐츠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양방향 인터랙티브 융합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는 총 50개 업체가 참여 신청하여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동 사업을 통해 방통융합 환경에서 융합형 콘텐츠 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등장하고 있는 IPTV 등을 활용한 고품질 콘텐츠를 확보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방통

융합 콘텐츠의 초기 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산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콘텐츠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모바일 콘텐츠를 방통융합 시대의 새로운 전략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되는 '모바일 웹 기반 응용서비스 발굴'사업에는 75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모바일 콘텐츠 분야에서 LBS, 모바일 검색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여 국내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의 모바일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벨소리, 게임 등)에 편중되어 플랫폼 개방 등 환경과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그 외에, 건강한 콘텐츠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콘텐츠 부가가치 확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을 추진, 국내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기기와 콘텐츠가 연계된 대중소기업 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가치사슬 연계강화 사업'(154개 업체, 34개 과제 응모)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현실감을 극대화한 콘텐츠 또는 생산·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지원'(51개 과제 응모)

- 영화, 방송,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기반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CG(컴퓨터 그래픽) 산업 육성 사업'(17개 과제 응모) 등

○ 이번 공모지원분야에서 제외된 가상세계는 시장초기 형성분야로서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관련 업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세계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폭넓고 심도깊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수행방안을 마련, 3월중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 지원사업에 응모한 과제들은 3월부터 단계적으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2분기부터는 실질적인 과제 착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부는 콘텐츠 산업의 신규 시장 창출은 물론, 콘텐츠의 타 산업 연계를 통한 동반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과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 융합형 콘텐츠 등 신성장동력 산업 본격 지원착수 [보도자료 2009.03.03]

## 2. 음악업계 동향

### 2-1. 유엔젤, '아이드러머' 앱스토어 카테고리 1위 차지

유엔젤(대표 최충열)이 2월 23일(미국 현지시각)부터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전세계에 유료로

공개한 모바일 뮤직 어플리케이션 '아이드러머(iDrummer)'가 공개 1주일 만에(3월 2일 현재)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료형 뮤직 카테고리 1위와 유료형 전체 순위(TOP PAID)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어쿠스틱(Acoustic),일렉트릭(Electric),미니(Mini),썸(Thumb) 등 4가지 스킨과 8가지의 다양한 사운드 조합으로 구성된 '아이드러머(iDrummer)'는 미국,캐나다,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 각국 현지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뮤직 카테고리 TOP 100 內에 모두 진입,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충열 사장은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수년간 쌓은 모바일 콘텐츠서비스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마켓에서 한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년 내로 기타,키보드 등 뮤직 어플리케이션 5종을 비롯하여 게임,교육 등 다양한 장르의 터치인터페이스 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세계시장을 두드리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앱스토어에서 대박난 개발자들" 디지털타임스 2009.03.04  
 유엔젤 '아이드러머', 애플 앱스토어 뮤직부분 1위 아이뉴스24 2009.03.03  
 유엔젤, '아이드러머' 앱스토어 카테고리 1위 차지 아크로팬 2009.03.03

**2-2. KTF뮤직, 올해 전체 매출 400억 전망**

지난 해 매출 338억원을 기록한 KTF뮤직이 27일 실적 전망 공시를 통해 올해 매출을 400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KTF뮤직은 특히 올 들어 이달까지 투자음원 매출이 20억원을 기록했다며 "올해 투자음원 매출을 전체 매출의 40% 가량인 15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KTF 음악포털 도시락의 영업양수 승인 안을 가결했다.

**[관련기사]**

KTF뮤직, 올해 전체 매출 400억 전망 머니투데이 2009.02.27  
 매출액·영업손익등에대한전망또는예측(공정공시) KTF뮤직 2009.02.27

**2-3. 음악 수직계열화를 이룬 엠넷미디어, 지난해 영업손 31억 적자축소**

엠넷미디어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기획, 제작, 방송, 유통, 판매)가 완성된 CJ 그룹 계열의 종합 뮤직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지난해 단일 장르 채널로는 최고의 기록인 약 40억원에 가까운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블TV와 독립 제작사 수출 계약 총 액인 약 1,760만 달러에서 엠넷이 약 30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성사를 시켰다. 이는 전체 계약금액에 약 20%가 넘는 실적이다.

이러한 결과로 엠넷은 PP사 중 콘텐츠 해외 수출 부문에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엠넷미디어는 5월 지난해 영업손실이 31억900만원을 기록해 적자 폭이 축소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88.5% 증가한 1,185억3500만원을 기록했지만, 당기순손실은 617억 6800만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관련기사]**

엠넷미디어, 지난해 영업손 31억...적자축소 네이버 머니투데이 2009.03.05  
 엠넷미디어, 지난해 당기순손실 618억원 전년比 ↑ 뉴스핌 2009.03.05  
 음악 관련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최고의 가치 창출 이투데이 2009. 3. 1

**2-4. 서태지 팬들, 저작권 관련 2차 국회토론회 개최**

서태지 팬들이 지난해에 이어 음악저작권 개선을 위해 2차 국회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일 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 챙김이(올챙이) 측은 서태지 공식 홈페이지에 후기 활동 방향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챙이 측은 "문화관광체육부에 진정서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입법이 이뤄지는 국회 쪽으로의 접촉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지난 해 국회토론회를 거치고 올 상반기에 2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서태지 팬들, 저작권 관련 2차 국회토론회 개최 스타뉴스 2009.03.02  
 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챙김이 올챙이 <http://www.allchang2.net>

**2-5. 기타 단신 등**

**○ 디바 이은미, 음악활동 20년만에 가수음반 제작**

맨발의 디바' 이은미가 음악활동 20년만에 처음으로 가수 음반 제작에 나섰다. 다수의 OST에 참여해온 작곡가 겸 작사가로 활동해오며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아온 '준비된' 신인이라는 전언이다.

**[관련기사]**

디바 이은미, 음악활동 20년만에 가수음반 제작 네이버 헤럴드 생생뉴스 2009.03.05  
 가수 이은미, 음반제작자로 깜짝 변신 네이버 문화일보 2009.03.05  
 이은미, 유해인의 음악으로 첫 음반 제작 나서! 아츠뉴스 2009.03.05

**○ 환율 '高·高'...한류 "Go-Go" 톱가수들, 공연·음반 해외 발길 활발**

최근 달러와 엔화 환율이 160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한류 스타들을 보유한 기획사들은 발 빠르게 해외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환율 '高·高'...한류 "Go-Go" 톱가수들, 공연·음반 해외 발길 활발 동아일보 2009.03.04

○ '에덴','꽃남' 日서 인기 재대결

화제 드라마 '에덴의 동쪽'과 '꽃보다 남자'가 최근 일본 TBS로 일본 내 방송사를 확정하면서, 일본에서 다시 인기 경쟁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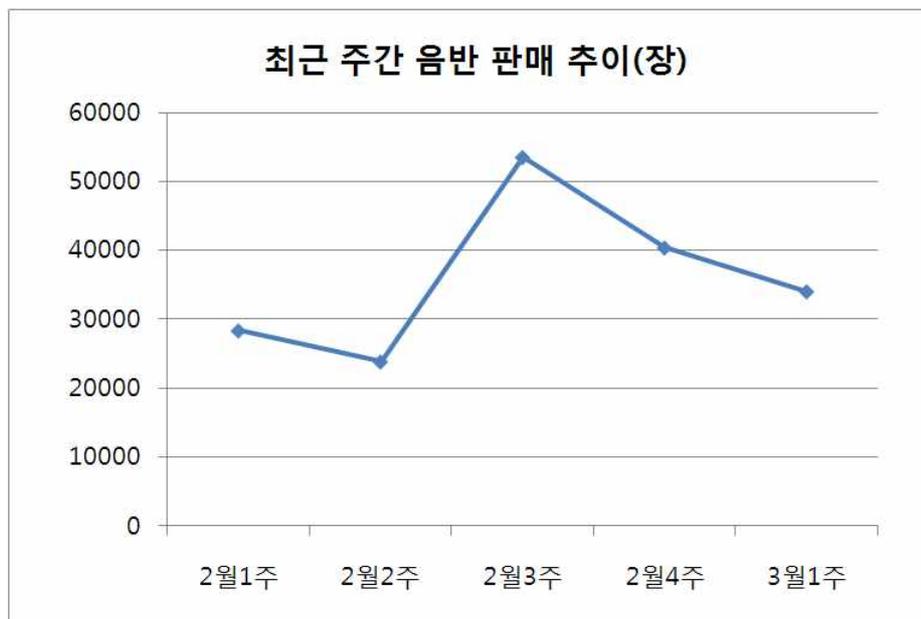
[관련기사]

'에덴','꽃남' 日서 인기 재대결 아시아투데이 2009.03.05  
 '에덴','꽃남' 日서 인기 재대결 네이버 연합뉴스 2009.03.05

### 3. 소비자 동향

#### 3-1. 음반동향 : 장기하와 얼굴들, 음반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3월 1주(2월 26일 ~ 3월 4일) 음반동향은 지난주에 이어 연속 2주째 전체 판매량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주 4만 장을 넘었던 주간 음반 판매량은 3만4천 장까지 하락하면서 큰 낙폭을 기록하였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2월 26일 - 3월 4일)

전체 판매량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난달에 이어 신보 음반들이 대거 차트로 진입하면서 다채로운 음반 구성을 보였다. 더욱 반가운 것은 인디레이블의 음반을 비롯하여 가창력을 무기로 하는 가수들의 음반이 다양하게 출시되었다는 것이다.

작년에 <싸구려 커피>라는 싱글 앨범을 내고 홀연히 가요계에 나타난 장기하와 얼굴들은 아이돌 대전이라고 일컬어졌던 작년 음반 시장에서 묵묵하게 1만 장 판매고를 올린 그룹이다. 특히 보컬을 맡고 있는 장기하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 또 다른 주목을 받았고 재미있는 가사와 독특한 멜로디로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포크 록을 유행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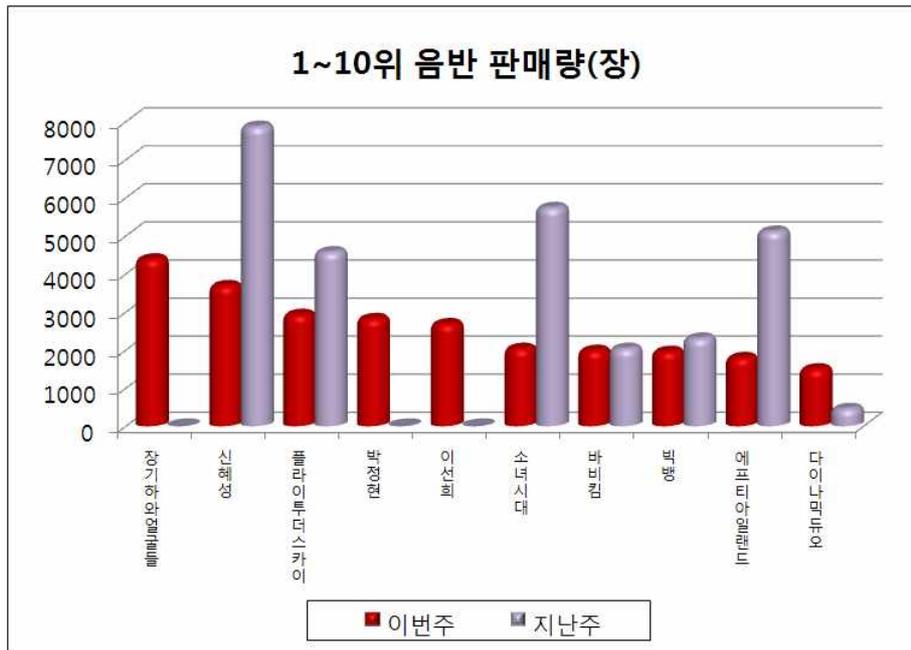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출시된 장기하와 얼굴들의 1집 앨범이 발매 첫 주부터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월 27일에 발매된 이번 음반은 신혜성,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등 10년차 가수들의 신보 음반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이기고 4000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였다.

또한 길었던 공백을 깨고 오랜만에 앨범을 낸 박정현, 이선희도 3000천 장에 가까운 판매량을 보이면서 발매 첫 주 차트 진입에 성공하였다.

순위	변화량	아티스트 / 앨범명	음반사	장르	금주 판매량	전주 판매량	발매일
1	진입	장기하와 얼굴들 1집 / 별일 없이 산다	붕가붕가	가요	4387	0	2009-02-27
2	▼1	신혜성 3집 side2 / Keep Leaves	에당	가요	3685	7,870	2009-02-16
3	▲1	플라이 투 더 스카이 8집 / Decennium	로엔	가요	2929	4,576	2008-02-10
4	진입	박정현 7집 / 10 Ways TO Say I Love You	로엔	가요	2821	0	2009-02-26
5	진입	이선희 14집 / 사랑아	엠넷	가요	2686	0	2009-02-26
6	▼4	소녀시대 미니앨범 1집 / Gee	에스엠	가요	2,038	5,737	2009-01-07
7	-	바비킴 / Special Album	도레미	가요	1,984	2,038	2009-01-12
8	▼2	빅뱅 2집 / Remember	엠넷	가요	1,957	2,308	2008-11-05
9	▼6	에프티 아일랜드 미니앨범 / Jump Up	도레미	가요	1795	5116	2009-02-17
10	▲15	다이내믹듀오 / Ballad For Fallen Soul Part 1	엠넷	가요	1498	459	2009-02-25
11	▼6	카라 미니앨범 2집 / Pretty Girl	엠넷	가요	1390	3199	2008-12-04
12	▼3	이소라 7집 / 겨울, 외롭고 따뜻한 노래	엠넷	가요	1066	1174	2008-12-17
13	▼5	백지영 7집 / Sensibility	로엔	가요	1012	1255	2008-11-14
14	진입	화나 1집 / Fantastic	엠넷	가요	931	0	2009-02-27
15	▼5	동방신기 4집 / Mirotic	에스엠	가요	769	1039	2008-09-26
16	-	화요비 미니앨범 / This Is Love	로엔	가요	661	553	2009-02-06
17	▲48	에피톤 프로젝트 1집 / 긴 여행의 시작	파스텔	가요	654	200	2009-02-24
18	▼7	지선 1집 / 인어...집으로 돌아오다	엠넷	가요	634	877	2009-02-03
19	▲5	정엽 1집 / Thinkin' Back On Me	엠넷	가요	580	459	2008-11-04
20	▲2	동방신기 3집 / "O"-正.反.合.:정반합	에스엠	가요	553	462	2006-09-28

출처 : 주)한터정보 (기간:2월 26일 - 3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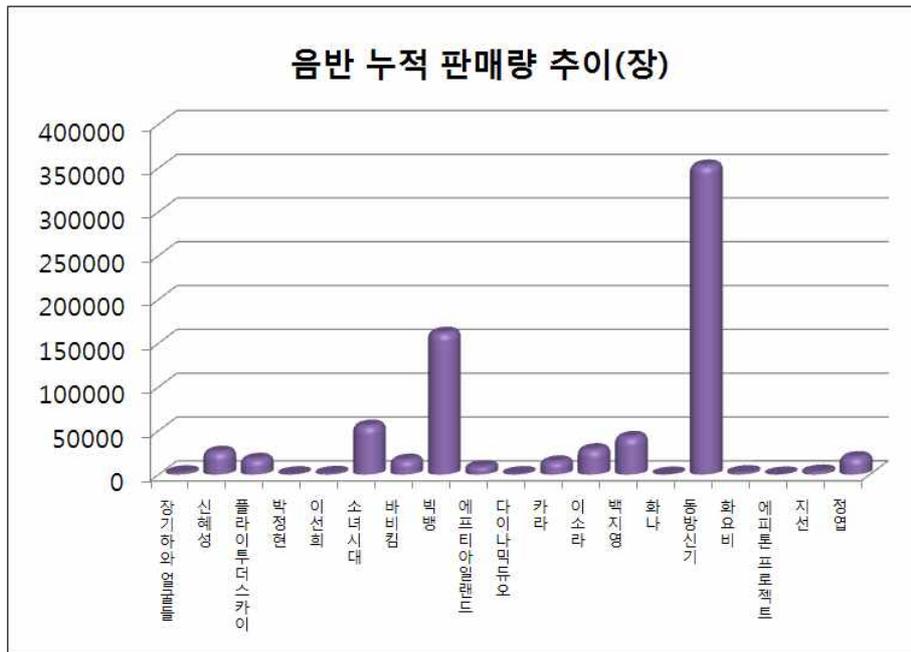
이번 주 음반 차트 상위권 순위를 살펴보면 올해 시작과 함께 상위권을 지키고 있던 소녀시대의 앨범이 6위로 떨어지면서 그 자리를 모두 신보 음반이 채우고 있었다.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이는 음반은 없었지만 1위부터 10위까지 고른 판매고를 내고 있어 그동안 아이돌 가수 위주로 돌아갔던 음반 차트를 벗어나 오랜만에 다양한 차트 구성을 볼 수 있었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2월 26일 - 3월 4일)

고른 판매량과 다양한 구성을 보였던 상위권 차트와는 대비적으로 하위권 차트의 경우 주간 판매량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음반의 구성 역시 스테디셀러보다는 소비력이 약한 신인 가수들의 신보 음반으로 되어 있었다.

누적 판매량에서는 지난주와 같이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동방신기, 빅뱅의 앨범이 여전히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었다. 다른 음반들과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적 판매량의 집계는 이번 주 역시 의미 없는 결과가 되었다.



출처: 주)한터정보, 편집: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 발매일 - 2/28일)

3월 1주의 음반동향 차트는 지난달에 이어 신보 음반들이 다시 대거 출시되면서 오랜만에 다양한 구성력을 가진 차트를 볼 수 있었다. 특히 10대 위주의 소비를 보였던 음반들보다는 가창력과 음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가수들의 신보가 고른 판매고를 올렸고 그 중에서도 <싸구려 커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장기하와 얼굴들의 정규 1집 앨범의 선전이 이목을 끌었다.

### 3-2. 음원동향 : 상위권 차트의 빠른 성장과 중위권 차트의 정체 현상

3월 1주의 음원동향은 휘성과 신혜성 등 신곡 몇 곡의 차트 진입이 있었지만 기존의 곡들이 순위이동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 혼전양상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혼전 속에서도 소녀시대의 <Gee>는 여전히 세 개의 사이트에서 1위를 지키고 있었다.

지난주의 경우 왁스와 소녀시대가 대결을 펼쳤다면 이번 주는 소녀시대와 휘성이 3대 1의 비율로 차트 1위를 점유하고 있었다. 1위와 더불어 더욱더 이목을 끌고 있는 곡은 카라의 <허니>이다.

<Pretty Girl>에서 <허니>로 타이틀곡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카라는 지난주 처음으로 신곡을 차트로 진입시키면서 음원 차트에 합류했었다. 진입 첫 주였던 지난주는 일부 사이트에서만 빠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의 경우 모든 사이트에서 2위에 안착하며 기존의 타이틀곡보다 더욱 큰 인기를 보여주었다.

순위	박스 2/19 ~ 2/25	엠넷 2/23 ~ 3/1	도시락 2/23 ~ 3/1	멜론 2/22~ 2/28
1	휘성 / Insomnia	소녀시대 / Gee	소녀시대 / Gee	소녀시대 / Gee
2	카라 / 허니	카라 / 허니	카라 / 허니	카라 / 허니
3	Fly To The Sky / 구속	휘성 / Insomnia	휘성 / Insomnia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4	왁스 / 전화 한 번 못하니	FT아일랜드 / 나쁜 여자야	화요비 / 반쪽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5	FT아일랜드 / 나쁜 여자야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FT아일랜드 / 나쁜 여자야	화요비 / 반쪽
6	소녀시대 / Gee	Fly To The Sky / 구속	Fly To The Sky / 구속	Fly To The Sky / 구속
7	화요비 / 반쪽	화요비 / 반쪽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린 / 사랑 다 거짓말
8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왁스 / 전화 한 번 못하니	왁스 / 전화 한 번 못하니	왁스 / 전화 한 번 못하니
9	티맥스 / 파라다이스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애프터스쿨 / AH	티 / 떠나지마
10	신혜성 / 왜 전화했어	바비킴 / 사랑 그놈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FT아일랜드 / 나쁜 여자야
11	이수근 / 갈 때까지 가보자	썸데이 / 알고있나요	티맥스 / 파라다이스	가비앤제이 / 연애소설
12	별 / 드라마를 보면	애프터스쿨 / AH	먼데이키즈 / Sorry	애프터스쿨 / AH
13	썸데이 / 알고있나요	신혜성 / 왜 전화했어	썸데이 / 알고있나요	바비킴 / 사랑 그놈
14	바비킴 / 사랑 그놈	보이스원 / 못한 내 사랑	티 / 떠나지마	휘성 / Insomnia
15	이지혜, 장석현 / 사랑 100%	티맥스 / 파라다이스	별 / 드라마를 보면	케이윌 / 러브119
16	백지영 / 나 때문에	브랜뉴데이 / 살만해	바비킴 / 사랑 그놈	티맥스 / 파라다이스
17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가비앤제이 / 연애소설	가비앤제이 / 연애소설	카라 / Pretty Girl
18	태군 / Call Me	다이나믹듀오 / Beyond The Wall	린 / 사랑 다 거짓말	신혜성 / 왜 전화했어
19	주현미, 소녀시대 / 짜라자짜	이승철 /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김경록 / 이젠 남이야	빅뱅 / 붉은 노을
20	애프터스쿨 / AH	김경록 / 이젠 남이야	이석훈 / 웃으며 안녕	FT아일랜드 / 나쁜 여자야

카라의 뒤를 이어 휘성의 상승세도 볼 만하다. 외국의 유명 아티스트 크랙 데이비드와 휘성의 만남으로 주목을 끌었던 번안곡 <Insomnia>는 차트 진입 첫 주 만에 박스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 엠넷과 도시락에서는 단숨에 3위로 랭크되었다.

카라와 휘성의 빠른 상승세와는 대비적으로 이번 주 음원 차트의 대부분의 곡들은 지난 주 차트 체류곡과 거의 비슷하였으며 순위변동 역시 그다지 크지 않아 최근 진입한 신곡들로 하여금 정체현상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주마다 빠른 변동을 보여주었던 음원 차트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정체감이었다.

3월이 되어도 신곡에 대한 반응이 가장 민감한 곳은 역시 박스였고 이에 반해 신곡들의

차트 진입이 더딘 곳은 멜론이었다. 엠넷과 도시락의 경우 소녀시대, 카라, 휘성이 삼파전을 벌이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의 순위 양상을 보였다.

3월 1주 음원동향은 소녀시대의 굳건한 자리매김 속에서 카라, 휘성의 전 차트 상위권 안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상위권 곡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곡들이 별다른 변화 없이 차트에 체류하고 있어 당분간 차트 내 정체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본다.

## 4. 언론 동향

### 4-1. 올 상반기, 계속되는 아이돌 여성그룹의 강세

연초부터 계속되던 소녀시대의 열풍은 아직도 뜨겁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소녀시대의 'gee'는 뮤직포털 엠넷의 3월 첫째 주 엠넷차트에서 다시 한 번 1위를 차지하며 8주 연속 1위의 기록을 세웠다.

또 다른 여성그룹 '카라'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데, 최근 2번째 미니앨범 후속곡 'Honey'를 발표하며 인기몰이중인 카라는 소녀시대의 'gee'에 이어 2주 연속 2위를 차지하며 저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여성 그룹들의 초강세가 이어지는 있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해 말 가요계를 주도하던 많은 남성 아이돌 그룹들의 빈자리에 대한 수혈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대부분의 여성그룹들이 표방했던 '섹시'에 대한 강박관념을 벗어던지고, 아이돌 여성그룹으로서 소녀시대가 본격적으로 제시한 순수하고 발랄한 이미지인 '소녀'의 힘은 다양한 세대에게 어필하며 많은 여성그룹들의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한편, 여성 아이돌그룹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돌아온 '디바'들의 활약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올 상반기 가요계의 여성파위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

#### [관련기사]

소녀시대 VS 카라, 여성그룹 투톱 경쟁 치열 [조선일보 2009-03-03]

카라, 소녀시대 맹추격...여성그룹 독주 `눈길` [매일경제 2009-03-03]

소녀시대, 8주 연속 엠넷차트 1위...최장기록 자체 경신 [마이데일리 2009-03-03]

소녀시대-카라, 온라인 차트 독주 속 여성 디바들 '반격' [노컷뉴스 2009-03-03]

### 4-2. 네이버 · 다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 받는다

언론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되어있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 3일 법원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고 밝혔으며 법원은 사안이 약식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의 정식 절차를 통한 해결이 요구되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12월, 저작권 침해 방조를 명목으로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된바 있다. 이것은 포털이 첫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로서 대형 인터넷포털 사이트의 무분별한 음악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 내려진 엄중한 경고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결국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됨으로서 법적 처벌이 갖는 시사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음악 저작권침해의 문제에서 상당부분 원인을 제공해온 포털사이트의 운영방식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라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에서는 지난해의 법적 처벌을 계기로 음원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 착수한 바 있는데, 그들의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인지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 [관련기사]

- <종합>법정에 서는 네이버·다음, 무슨 잘못 했나 [뉴시스 2009-03-03]
- '저작권법 위반' 혐의 네이버·다음 정식재판 [세계일보 2009-03-03]
- 법정에 서는 네이버·다음, 무슨 잘못 했나 [뉴시스 2009-03-03]
- 네이버·다음 정식재판 받는다 [서울경제 2009-03-03]

### 4-3. 드라마 속 '막장' 논란 가요계까지

드라마 속의 '막장' 논란이 가요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언론은 신인가수 '아주'의 곡인 '재벌 2세'가 KBS로부터 물질만능주의 조장을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는데 이어 최근 발표된 신인가수 '이불'의 신곡 '사고치고 싶어'가 MBC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사실을 보도하며 논란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기 드라마 '아내의 유혹'과 '꽃보다 남자' 는 지나치게 허구적이고 극단적인 내용 전개로 인해 언론과 대중에 의해 '막장'이라고 이름 붙여지며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를 얻으면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문화콘텐츠 업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가요계 역시 얼마 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발라드곡인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의 성공으로 인해 논란에 합류하기 시작했는데, 직설적인 가사를 주 무기로 인기몰이에 성공한 이 노래는 음악 업계에서도 소위 말하는 '막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그에 따른 적지 않은 파장도 함께 낳은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표현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선정성의 측면에서 심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주된 의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이 갖는 특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사고치는' 가사들이 마구 쏟아진다 [헤럴드 생생뉴스 2009-03-04]
- 총맞은 것처럼...사고치는 가요계? [헤럴드경제 2009-03-04]
- 가수 이불, 방송불가로 손담비와 입맞춤 불발 [이데일리 2009-03-02]
- '막장' 바이러스, 가요계에도 침투? [아시아경제 2009-02-27]

**4-4. 주요 단신**

○ **'대중문화의 전당' 유치경쟁 치열**

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치 의사를 밝히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대중문화를 다루는 공연장 유치는 단체장의 주요 업적으로 기록된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정은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 '대중문화의 전당' 유치경쟁 치열 [내일신문 2009-03-03]

○ **불황 공연계, 줄이고 또 줄인다**

불황을 맞은 공연계가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작비를 줄여 티켓 가격을 인하하는가 하면 프로그램북 등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도 줄이고 나섰다.

**[관련기사]**

- 불황 공연계, 줄이고 또 줄인다 [서울경제 2009-03-03]

○ **'인디' 장기하와 얼굴들 , 음반 판매 1위 기염**

3일 음반판매 조사사이트인 한터차트에 따르면 장기하와 얼굴들의 정규 1집 '별일 없이 산다'는 지난 2일 일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일에 비해 무려 10계단 뛰어 오른 수치다.

**[관련기사]**

- '인디' 장기하와 얼굴들 , 음반 판매 1위 기염 [쿠키뉴스 2009-03-03]

**5. 행사 및 협회 소식 등**

**5-1. 메이다니의 '세븐틴' 우수신인음반 선정**

메이다니의 싱글앨범 '세븐틴(7teen)'이 3월의 우수 신인음반에 선정됐다.

세븐틴은 해변의 여인(쿨), 잇을게(윤도현밴드) 등을 작곡한 윤일상이 직접 작사와 작곡 그리고

프로듀싱까지 맡은 음반이다. 타이틀곡 '몰라ing'은 2AM의 조권과 정진운이 피처링에 참여했으며 첫사랑에 설레는 소녀의 애뜻한 마음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댄스실력을 겸비한 메이다니는 데뷔전 16세 때 이미 알리샤 키스의 'I Ain't Got You'를 부른 동영상 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김장실 제1차관은 지난달 2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메이다니에게 우수 신인 음반 수상 기념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관련기사]**

- 메이다니의 싱글 앨범 <7teen>, 이달의 우수 신인음반 선정 아츠뉴스 2009.02.27
- 메이다니, '제2의 보아'로 다시 러브콜 쇄도 쿠키뉴스 2009.03.04
- 가수 메이다니, 3월의 우수 신인음반 선정 조선일보 2009.02.26

**5-2. 2009년도 제1차 저작권 전문가 포럼 개최**

저작권위원회는 『IPTV의 기술과 발전동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2009년도 제1차 저작권 전문가 포럼을 2009년 3월 5일(목) 개최했다.

IPTV에 정통한 KT의 기국간 뉴미디어사업팀장이 발표하는 이 자리는 IPTV의 기술내용, 서비스 형태, 실시현황, 발전동향 등 IPTV의 모든 것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포럼내용에 대한 문의는 :
  - 법제연구팀 이호흥(전화 : 02-2669-9975, 이메일 : jinlee@copyright.or.kr),
  - 서재권(전화 : 02-2669-9998 이메일 : jkseo@copyright.or.kr)

**[관련사이트]**

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http://www.copyright.or.kr)

**5-3. 실연자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 도입**

지난 3월 2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해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자유선진당 김창수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는 공연보상청구권 도입을 위해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업무공조를 통해 입법을 추진해왔으며, 여론형성을 위해 국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입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연보상청구권의 도입으로 실연자는 백화점/할인마트 등 유통업체, 스키장/골프장 등 전문 체육시설, 호텔 등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저작권사용료 징수대상 중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사업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는 향후 공연보상금 징수단체 지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징수요율 및 방안, 분배자료 확보, 조직편성 등 관련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연자의 권익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관련사이트]**

한국음악실연자협회, [www.fokapo.or.kr](http://www.fokapo.or.kr) 2009.03.05

## Ⅲ. 해외 동향

###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 1-1. YouTube와 Universal Music, 라이선스 협상 진행

Google의 YouTube와 Universal Music Group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종 계약의 체결일은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계약 기간 자체는 논의 중이라 달라질 수 있다.

YouTube는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의 광고를 유도할 수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그 과정에서 음악산업 메이저들과의 수익 배분 문제로 새로운 계약을 맺는 데는 실패했다. 그리고 그 후 주요 기업들은 2006년과 2007년에 YouTube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재협상을 시도해 왔다.

최근, YouTube는 비디오 옆에 작은 버튼을 만들어 팬들이 클릭하면 iTunes나 Amazon으로 연결되어 그 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이로 인한 수익을 음악 기업들과 분배하는 음악서비스를 내놓았다.

그리고 올해 Sony Music Entertainment는 YouTube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Universal Music, Warner Music, EMI와의 계약은 아직 보류중이다.

YouTube와 Universal Music Group 사이에 언급된 계약 논의는 기존의 계약 연장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계약을 맺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거기에는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뮤직 비디오 뿐 만 아니라, 뮤지션과 밴드들에 관련된 콘텐츠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Google의 CEO인 Eric E. Schmidt는 목요일 투자자 회의에서 이런 대형 음반사와의 계약에 대해 “음악 업체들에게 음원(뮤직비디오 등)을 이용한 광고수익의 충분한 보상”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으며, 아직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YouTube and Universal Music Are Said to Discuss Deal,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9-03-05

#### 1-2. Eminem 음악, 디지털 음원 구매 논란의 중심에 서다

Eminem 음악과 관련된 2년여의 소송 판결이 LA에서 곧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minem의 전 음반 출판 회사인 FBT 프로덕션과 Em2M은 Universal Music Group(이하, UMG)가 자신들에게 13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고소했다. 이들은 UMG가 Eminem의 음원을 다운로드 판매 할 때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한 측면은 단순한 수익적 측면이 아닌 Apple의 iTunes Music Store와 같은 매장에서 디지털 다운로드로부터 벌어들인 저작권 범주 및 성격에 관한 재규정을 하는 것으로 판결의 결과에 따라, 수백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음원판매 회사가 아티스트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쟁점은 음원 다운로드가 단순한 구매인지 아니면 라이선스의 문제인지에 대한 것이다. FPT 프로덕션과 Em2M의 변호사들은 라이선스 쪽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아티스트들이 라이선스 요금과 다운로드 음원 판매 수입을 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선스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아티스트들은 99센트의 다운로드가 판매될 때마다 35센트를 받게 된다. 현재 그들은 개별적 협상에 따라 7센트에서 20센트를 받고 있다.

#### [관련기사]

Eminem's music at center of suit, DetNews.com, 2009-03-03

### 1-3. 오랜 다운로드 관련 소송이 드디어 합의에 도달

지난 금요일, 변호사들은 2005년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공유 및 해적 행위로 고소당한 Patti Santangelo의 가족과 음반 업계, 양측의 임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New York의 Wappingers Falls에 거주하는 Santangelo는 자신은 다운로드나 음원 배포를 하는 방법조차 모른다고 별금을 거부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합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사건을 신문과 국영방송에 호소했다.

이에 2007년에 음반업계는 Santangelo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대신 그녀의 두 아이인 Michelle(20세), Robert(16세)를 고소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1,000개가 넘는 곡을 공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Michelle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Robert는 자신은 단순히 함께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antangelo 가족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antangelog 가족의 변호사인 Jordan Glass는 금요일에 도출된 합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3월 18일까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반 업계는 법원이 다운로드로 인해 생긴 불분명한 손실을 정산하여 밝혀내기를 바라고 있다.

#### [관련기사]

Music Industry Settles Famous Downloading Lawsuit, FOXNews, 2009-03-02

## 1-4. 주요단신

### ○ 음원 구매 시 소비자들이 iTunes보다 Amazon을 선호

Strategy Analytics의 최근 보고서는 영국 디지털 음원 소비자들이 음원 구매에 있어서 iTunes Store보다 Amazon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515명의 영국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음원, 비디오, 게임을 다운 받을 때 어느 사이트를 선호하는지 물었고, 아마존이 세 분야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여전히 iTunes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관련기사]

UK music buyers prefer Amazon to iTunes Store, just barely,  
Ars Technica, 2009-03-02

### ○ mSpot이 자사의 첫 웹사이트 출시

모바일 음원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mSpot이 자사의 첫 소비자 웹사이트인 mSpot.com을 2일 출시했다. 이 사이트는 사용자들이 음원을 구매하고 편집하여 자신만의 컬러링을 만들어 휴대폰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Make-UR-Tones 서비스를 제공한다.

#### [관련기사]

mSpot Launches Consumer Music Website, Bizjournals.com, 2009-03-02

### ○ Virgin Megastores의 남은 점포 모두 폐쇄 예정

\*Virgin Megastores : 국제적인 음반 매장 체인점. 1979년 첫 매장을 열고 90년대 세계에 수많은 매장을 확대했으나 Best Buy, Wal-Mart, 온라인 서비스들로 고객들이 빠져나가자 최근 몇 달 동안 몇 개의 점포를 폐쇄했으며 여름쯤 남은 점포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Virgin Megastores to close remaining US stores, Los Angeles Times, 2009-03-02

### ○ Warner Music과 MTV Games 재계약 협상 미정

Rock Band DLC(Downloadable content)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던 Warner Music과 MTV Games의 계약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그들의 재계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MTV Games가 Warner Music의 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재계약은 미지수다.

#### [관련기사]

Warner to end contract with Rock Band developers?, GamesAreFun.com, 2009-03-04

### ○ Nokia Music Store 싱가포르 출시, DRM-free 검토 중

#### [관련기사]

Nokia looking to make its Nokia Music Store DRM-free, Mobile Burn, 2009-03-02

## 2. 한류관련 음악산업 현황

### 2-1. 태국 유력 일간지 한류열풍 집중보도 '소니보다 삼성 사게 한다'

태국 언론들이 한류 열풍을 보도하며, 동방신기, 빅뱅, 슈주 등의 스타들과 함께 패션에서부터 다양한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한국 상품으로 그 인기를 넓혀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류가 우연인지, 준비된 것인지에 대한 기사를 통해 태국 젊은 층을 사로잡고 있는 한류를 밀도 있게 분석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대중문화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한국 사례를 들어 역설했다.

방콕포스트는 한류가 일시적인 것이든 광적인 것이든, 아시아 대륙 안에서 아시아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교환하고 알 기회가 된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관련기사]**

- 태 방콕포스트 "한류문화가 소니보다 삼성을 사게했다" 마이데일리 2009.03.04
- 태국 유력 일간지들 잇따라 한류열풍 집중 보도, 빅뱅 동방신기 슈주는 지금. 뉴스엔 2009.03.04
- 태국 언론 "한류, 우연? 준비?" 잇단 집중보도, 스타뉴스 2009.03.04

**2-2. 한류스타 이준기, 대규모 아시아 팬 콘서트 연다**

한류스타 이준기가 국내외 팬들을 위해 대규모 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준기는 오는 4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이준기-에피소드 2'라는 타이틀로 1만여 팬들에게 춤과 노래를 선사한다.

한 측근은 "이준기가 올 하반기에 월드투어 팬미팅을 계획 중이다. 이번 '에피소드 2'는 월드투어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한류스타 이준기, 대규모 아시아 팬콘서트 연다 스포츠조선 2009. 3. 2
- 한류스타 이준기, 직접 기획한 대규모 콘서트 열어 스포츠서울 2009. 3. 2
- 이준기 대규모 팬 콘서트, '1만여 한국재경신문 2009. 3. 2

※ "음악산업 주간브리프"는 게이트웨이 위콘([www.wecon.kr](http://www.wecon.kr))의 '업계는 지금' - '산업동향'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  
**팀장 이동주 (Tel. (02)2016-4010)**  
**과장 김도윤 (Tel. (02)2016-4091)**